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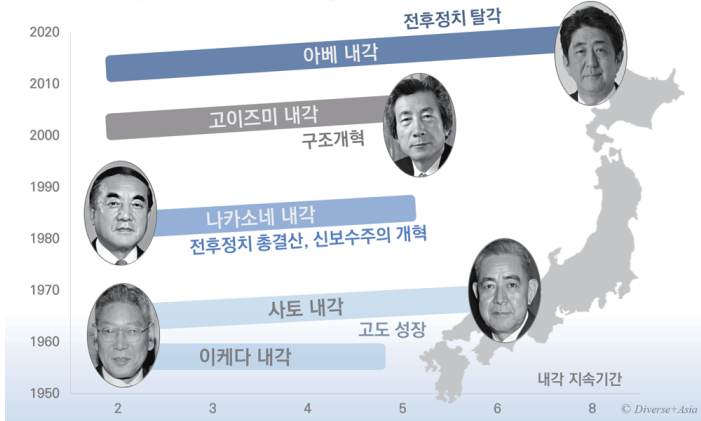
파벌정치가 자민당 주도의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파벌 간 대립은 오히려 여당 내 야당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유사정권교체라는 규정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뀌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자민당 주도의 정치가 지속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정치의 특징으로 내각과 집권여당의 이원적 구조에 의한 응집성의 결여, 혹은 응집성의 제약이 제시되기도 한다. 내각과 집권여당의 응집성은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정책결정과 정책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과 단절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의미에서 볼 때, 응집성이 약하다는 것은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가와 연결된다. 이 점은 정책결정이 정치가와 관료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즉의원 정치, 관료 우위론, 관저 정치 등 정치인 혹은 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지배의 정치가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주도의 정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전후가 차별과 선별적 선택, 혹은 희생에 의해 연명해 온 체제라는 점이다(권혁태, 2013).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정관재(政官財)의 이익유도시스템, 대기업 중심의 노사협조체제, 사회당과 노조(혁신계 노조인 전국노동자총맹의회)의 협력관계 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작동이라기보다는 지배적 행위자들에 의해 작동되어 온 시스템의 지속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리더에 의존하는 모습도 자민당과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였다(래드 그로서먼 2020).. 일본정치는 항상 도전에 직면해 왔다. 1960~70년대 경제성장이라는 도전과 2000년대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질서 변동이라는 도전이 그것이며,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서 항상 리더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경무장 경제발전' 노선을 주장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고도성장기 아케다(池田勇人)와 사토(佐藤栄作), 개혁정치의 나카소네(中曾根康弘),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아베(安倍晋三) 등은 성장과 개혁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자민당 주도 정치의 공고화와 보수지배의 정치를 가속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역대 장수 내각 및 주요 정책



일본 역대 장수 내각 및 주요 정책 ©Diverse+Asia

정치의 왜소화와 민주성의 결여

이처럼 지배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일본정치는 2000년대 이후 정치공간이 획일화 되면서 공격적이고 배제적인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다. 정치공간의 획일화와 배제적인 정치의 일반화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당의 민주성결여이다. 2006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고이즈미 칠드런, 2010년 오자와 겔스 등 정치적·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의 당선은 정치를 희화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내 최고 실력자가 의원들을 통제하고 당을 장악, 당내 논의 및 비판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堀江正弘 2016). 특히 당내 민주성의 결여는 포퓰리즘 정치, 자극적인 언행, 언론을 활용한 정보의 왜곡과 통제를 통해 정책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소멸시키고 있다(保阪正康 2019).

둘째, 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한 자민당 독주이다. 2009년 민주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치의 시정과 정치주도의 정치실현을 목표로 하였지만, 리더십 결여와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決められない政治)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유약함은 2012년 이후 재집권한 자민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시켰는데, '지나친 결정의 정치'(決めすぎる政治)를 초래하여 심의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자극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환심을 얻는 인기영합 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치의 왜소화, 비민주성은 일본정치사회를 편협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릇된 내셔널리즘을 창출시키고 국가주의(statism)를 강화시킴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수지배의 필연성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수화' 또는 '우경화로 인한' 치우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정치의 비민주성이 치우침의 정치를 추동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비민주성이 국민들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따라잡기 전략의 한계, 경제적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추락, 인구구성의 변화, 재정적자 확대, 장기 디플레이션 등에 기인하는 비판주의와 분노의 정서가 현재 일본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이 점이 오히려 일본의 변화를 위해 강한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치를 소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위한 과정은 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주의를 재구축하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개혁정치는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주의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개혁을 실현하기 위